

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⑤:3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40 신대동여지도(재)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	00 튠트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40 채널A 일요기획	00 KBS 뉴스광장 20 100년의 가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5 굿모닝A	25 아침마당	00 브라질 월드컵 특집 인디스 8,000km	30 생방송 오늘아침	30 아침 연속극 (나만의 담신)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45 강연 100℃ 특선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튠트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KBS네트워킹특선 수자로 읽는 부산, 남해 55 바쁜날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VJ 특강대(재)	00 재취업 프로젝트 연니가 돌아왔다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5 우리날 거꾸기		10 MBC 청오뉴스 20 우리가락 우리문화	00 SBS 12 뉴스 30 닥터 365 35 2014 중흥 S-클래스배 고교동문클럽대회(재)
1 30 뉴스특보	00 KBS광주총국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력방송 10 강연 100℃	00 세계는 지금(재)	20 통일 전망대	35 한국의 맛
2 40 직언직설	10 스카우트	00 생활의 발견(재)	00 TV속의 TV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현장 고항이 보인다
3 50 정몽관의 시사방법	00 뉴스토크	00 영상앨범 산 3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다시 보는 대한민국 월드컵	00 MBC 경제뉴스 10 수빈스토리 40 헬로키즈 아하! 역사탐험대	10 절벽과 절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4 50 박진희의 캐드난마	00 KBS 파노라마 55 튠트 생활체조	50 우리동네 예체능(재)	30 똑? 똑! 키즈스쿨	00 꿈의 보석 프리즈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5 0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라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밤의와 생활 35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지구촌 뉴스 30 생생 정보통	20 이정재 후보자 연설 30 윤종민 후보자 연설 40 김영수 후보자 연설 50 김왕복 후보자 연설	05 닥터 365 15 후보자연설방송 김왕복 경주시교육감 25 KBC 생방송투데이 50 후보자연설방송 장휘국 경주시교육감
7 20 뉴스특보	00 KBS 뉴스 7 10 6·4지방선거 후보 방송연설 20 Colors of Football 30 러브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빠꾸기 등지)(첫회)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 드라마 (사랑만 할래)
8 10 갈때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0 후보자연설방송 강은태 경주시장
9 20 특집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20 Colors of Football 30 글로벌 다큐멘터리		30 리얼스토리 논	00 2014 현대자동차그룹 스포셜 50 후보자연설방송 윤장현 경주시장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20 콘서트 필	00 월화드라마 (빅맨)	00 월화특별기획 (트라이앵글)	00 일일연속극 (닥터 이방인)
11 00 모쿠드라마 (싸인)	00 Colors of Football 10 글로벌 다큐멘터리	10 우리동네 예체능	00 PD수첩	15 심장이 된다
12 10 웰컴 투 시월드(재) ①:20 집나간 가족	00 KBS 걸작 다큐멘터리 50 고향창작(재)	3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미리보는 대한민국 월드컵	10 MBC뉴스24 20 세바퀴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①:05 일일예술무대 뒤란



대륙에 부는 한류열풍

협한 역풍 주의해야

한류스타 중국행 러시... 김태희도 드라마 출연

왼쪽부터 김태희, 장나라, 박해진, 장혁

중국 대륙이 두 팔 벌려 한류스타들을 품고 있다. 혹자는 “중국이 진공청소기처럼 한류스타들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비유도 한다.

특히 한일 관계 냉각기로 일본 시장이 정체에 빠진 지금 중국의 거대 시장은 한류스타들에게 놓쳐서는 안될 기회의 땅이다. 지난주 연애가 주요 뉴스 중 하나는 톱스타 김태희가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현대극도 아닌 40부작짜리 사극. 김태희가 중국인 역을 맡아 중국어 연기를 펼친다는 점이 화제였다.

김태희는 중국드라마 ‘서성 왕희지’(書聖王羲之)의 여주인공 씨루이 역에 캐스팅됐다. 중국 최고 서예가 왕희지의 일대기를 그린 이 작품에서 김태희가 맡은 씨루이는 주인공 왕희지의 부인이다.

소속사 루아엔터테인먼트는 “김태희는 중국어공부와 서예 수업, 왕희지에 관한 공부에 매진 중이다”고 전했다.

김태희에 앞서 중국 드라마계에는 장나라, 추자현, 박해진, 장혁, 이다해 등이 먼저 진출해 자리를 잡았다. 장나라의 경우는 중국인들이 그를 아예 중국인으로 알 정도로 현지화에 성공했으며, 추자현, 박해진은 국내보다 중국에서 더 큰 인기를 누리며 현지에서 성공했다.

연예계에 따르면 한류스타들의 중국 드라마 출연료는 그들이 국내에서 받는 출연료의 2배 이상이다. 한 연예 기획사 대표는 “중국에서 한국 여배우는 대개 회당 출연료가 7000만~8000만원이고, 남자 배우는 1억원도 넘는다”면서 “국내 출연료의 2배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한류붐은 ‘사랑이 뭐길래’ 이후 시작돼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등을 거치며 활황 타올랐다.

하지만 심의 등의 문제로 외국드라마가 중국 지상파채널에서 방송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갈수록 수입장벽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드라마 수출에만 기대서는 한류스타가 중국을 공략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

최근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대륙을 뒤흔들었지만 이 역시 동영상 사이트에서 터진 것이지 TV에서 방송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커져만 가는 중국의 콘텐츠 시장과 한류스타에 대한 관심이 중국 작품 출연이라는 러브콜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어로 연기해야하고 중국에서 연기하는 동안 국내 활동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국내 시장을 비울 수 없는 스타를 입장에서는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 경기 침체와 한동안 효과 노릇을 해오던 일본 시장의 냉각 등은 한류스타들을 중국으로 다시 눈돌리게 했다.

한류스타들은 중국 광고계에서 블루칩이다. ‘별에서 온 그대’로 김수현과 전지현의 광고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그에 앞서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로 바람몰이를 한 이민호와 원조 한류스타 송해교도 현지 광고계에서 ‘귀하의 몸’ 대접을 받는다.

특히 현재 김수현과 전지현은 중국 광고계에서 1년 계약에 10억원 이상의 모델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류스타들의 중국행 러시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한류스타들이 중국 진출만 생각하다 중국에 끌려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한류스타들이 돈만 보고 움직인다는 비난과 함께 혐한의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김태희의 중국 진출 소식을 국내 팬들은 중국에서 드라마 제작발표회까지 진행된 지 하루가 지난 후, 그것도 ‘풍문’으로 전해들어야 했다.

하지만 한류스타들도 자존심을 지키고 국내 팬들을 배려한다면 최소한의 ‘기본’은 지킬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반대로 한류스타들이 잇달아 중국 시장을 휩쓸자 현지에서는 반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떡튀’ 논란과 함께 한류에 경도되지 말고 중국 자체 콘텐츠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자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청개구리 길들이기)	14:45 미연미이로봇	19:30 EBS 뉴스
05:40 성공 인생 후반전	10:10 EBS 특강	15:00 초능력 특공대	19:50 극한직업(재)
06:10 명의 3.0(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모피와 친구들	20:40 디류 오늘
07:00 놀이터 구조대, 뽀이(재)	11:20 세계테마기행 (스리랑카)(재)	15:30 모여라 당동당 스페셜	20:50 세계테마기행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당 유치원(재)	<대양이 떠오르는 땅, 타키>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부(재)	12:10 EBS 스페셜 2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30 한국기행
07:45 뽀롱뽀롱 보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이	<문화예술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3:10 줄거은 수학 EBS MATH	16:45 곰피와 친구들(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20 두다다(재)	13:20 와글와글 친구들	17:00 방귀대장 뽀롱이(재)	22:45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8:35 방귀대장 뽀롱이	13:30 꼬마 기사 마이크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부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8:50 곰피와 친구들	13:45 치료와 친구들	17:30 뽀롱뽀롱 보로로	24:05 지식채널e(재)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헬로 코코롱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세계 명작 극장
09:2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4:15 시계마을 티키톱	18:00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	(다운은 예배)
09:35 뽀롱	14:30 부릉!부릉! 브루미즈	19: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재)	01:20 시네마 천국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1:40 최태성의
<수학 1>(재)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0:50 <수학 1>(재)	12:15 수능특강 <수학 1 A형>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1>	13:05 <수학 1>
02:30 <수학 1>	14:00 <국어 A형>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한국사>
04:10 <사회>	15:40 <동아시아사>
05:00 <한국사상>	16:30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1 B형>	17:20 <세계지리>
06:40 암흑탐스런 <회화 1>	18:10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1>	19:00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1>	20:00 수능특강 <국어 A형>(재)
09:10 <수학 1>(재)	21:00 <한국사>(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10:50 2013 포스 <수학 1 B형>(재)	<회화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수학 3-1>
07:30 친절한 수학 이해용이 5-1	<수학 4-1>
08:0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강좌	16:20 <수학 5-1>
08:30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 강좌	16:50 <수학 6-1>
09:00 줄거은 수학 EBS MATH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수학집중 5-1>
09:50 <수학 1 (상)>	18:00 TV 중학 <영어 3-1>
10:30 <역사 2>	18:40 <수학 3-1>
11:10 <국어 ③④>	19:20 통합신공 <수학 3-1>(재)
11:50 <수학 2(상)>	20:00 중학 중간·기말 시험대비 문제풀이
12:30 통합신공 <수학 1(하)>	<사회 1-1>
13:10 <수학 2(하)>	20:40 <과학 1-1>
13:50 <과학 2(하)>	21:20 <과학 2-1>
14:30 <수학 2(하)>(재)	22:00 <역사 1-1>
15:20 초등 기말성취도평가 대비특강	22:40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3일(음 5월 6일 乙巳)

子	36년생 협조자와 반강자가 함께 하는 모습이다. 48년생 이동하는 기운이 비치니 체제를 하는 것이 좋다. 60년생 뜻을 펼치리라. 72년생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나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문제다. 84년생 천천히 행하라. 행운의 숫자 : 90, 36	午	42년생 얼마나 치열하고 집요하느냐가 성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54년생 근거 없는 남심이나 풍문은 무시해도 된다. 66년생 하나 씩 진전을 보이겠다. 78년생 크게 인정받거나 수확할 수 있는 영광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2, 89
丑	37년생 강력한 유혹의 손길이 뻗지라. 49년생 겨우 체면만을 유지할 수 있다. 61년생 절실하 기다리고 있던 것이 들어오겠다. 73년생 한결 같아서 큰 차이가 없다. 85년생 세이나라지 않도록 신경 쓰자. 행운의 숫자 : 28, 45	未	43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휩쓸려 갈 수 밖에 없으리라. 55년생 상대의 충고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67년생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니라. 79년생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고민이 해소 된다. 행운의 숫자 : 64, 22
寅	38년생 기대치에 못 미치어 실망하는 모습이다. 50년생 단독의 입장은 영향력이 약하니 함께 하도록 하자. 62년생 정중동의 형태가 합리적임을 알아야 한다. 74년생 당황하지만 않으면 무난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0, 55	申	44년생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56년생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겠다. 68년생 충분히 수고하지 않으면 번복하게 되리라. 80년생 극상의 정점에 와 있으니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3, 68
卯	39년생 상대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는 모습이다. 51년생 중복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 볼 일이다. 63년생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느니라. 75년생 발판으로 삼을 만한 교두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2, 79	酉	45년생 잘 활용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다. 57년생 열심히 해 놓으면 마지않아 요긴하게 쓰이리라. 69년생 알면서도 말 못하는 답답함이 보인다. 81년생 실수로 인한 누락이나 흠결의 피해가 클 수다. 행운의 숫자 : 06, 92
辰	40년생 알려고만 한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52년생 현재는 순풍일지라도 가변적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64년생 적절한 시기의 선택과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 76년생 집중적인 시선을 받을 수다. 행운의 숫자 : 19, 31	戌	46년생 뜻밖의 것이 오히려 더 실속이 있다. 58년생 주관적인 심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겠다. 70년생 너무 거친 상태이니 세밀하게 다음을 필요가 있다. 82년생 흥이 절로 나는 즐거움 일일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51, 59
巳	41년생 크게 될 나무는 떡 잎부터 알아보는 법이다. 53년생 피상적인 면에 지배 받지 말고 원칙대로 추진하라. 65년생 허가 한 개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있느니라. 77년생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함을 알라. 행운의 숫자 : 63, 38	亥	47년생 혼란스러워 하지 말고 조심으로 결정하면 된다. 59년생 만만찮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느니라. 71년생 터놓고 논해야만 수긍하게 되리라. 83년생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임의적으로 추측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3, 8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복수 아이콘 이제 내려 놓고 싶어요”

KBS 새 일일연속극 ‘빠꾸기 등지’ 백연희 역 장서희



“복수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싶어요”

배우 장서희는 2009년 드라마 ‘아내의 유혹’으로 각인된 ‘복수의 화신’ 이미지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이었다. 장서희가 국내 복귀작에서 복수에 나선 대리모가 아니라 그로부터 아이와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강인한 엄마 역할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빠꾸기 등지” 제작발표회에서 만난 장서희는 중국 활동 4년 만에 국내 시청자에게 돌아온 만큼 새 생기된 모습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빠꾸기 등지”에서 백연희 역할을 맡은 장서희입니다”라고 운을 뗀 장서희는 “기사 댓글을 쫓았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2/3였고 약간의 부정적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서희는 “수많은 역할을 연기했는데 시청자들이 많이 기억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센’ 내용의 일일드라마인 것 같다”면서 “장서희가 또 복수극을 한다”는 편견을 깨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극중 백연희는 자궁경부암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댁 요구로 대리모 출산을 선택한다. 그러나 백연희 첫사랑의 여동생이 우연치 않게 그 대리모가 되고 자신의 오빠를 죽임으로 몰고 갔다는 생각에 백연희에 대한 복수에 나서면서 드라마는 파국으로 치닫한다.

장서희는 ‘막장 드라마’를 우려하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리모라는 자극적 소재는 뒷부분을 위한 하나의 장치이고 극 후반부에는 두 여자의 모성에 이야기가 나온다. 드라마를 보고 평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서희는 이어 “빠꾸기 등지”가 가족간 사랑과 화합, 모성애를 그렸다는 점을 높이 봤다”면서 “이번에는 예전보다 성숙하고 깊이있는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서희는 최근까지 ‘수당영웅’ 등 여러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중국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날 제작발표장에도 중국 상해동방TV 취재진이 자리해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장서희는 “이 드라마가 끝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활동할 계획”이라며 “한중 양국을 오가면서 교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故 김광석 헌정 앨범 제작사-유족 법적 갈등

최근 발매된 고(故) 김광석(1964~1996) 헌정 앨범 ‘김광석 오마주 나의 노래’와 관련해 제작사와 유족이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31일 음반 제작사인 페이퍼레코드에 따르면 최근 김광석의 부인 서씨가 앨범에 사용된 사진 저작권이 퍼블리시티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앨범 유통사와 음원 서비스에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

서씨가 문제 삼은 부분은 앨범 커버에 사용된 김광석의 사진 이미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품 등에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제작사 관계자는 “국내에 퍼블리시티권 관련 명시적 규정이나 확정된 판례가 없는 만큼 침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서 씨가 유족인 만큼 커버 이미지 교체 등을 통해 원만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페이퍼레코드는 지난 3월 김광석 탄생 50주년을 맞아 여러 가수들이 그의 노래를 부른 헌정 앨범을 발매했다. 당시 제작사는 수익금을 김광석의 노모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2년에 걸친 김광석의 부모 등과의 소송 끝에 2008년 저작권을 인정받았다.